

밀양아리랑의 전승에 대한 재인식:

발리 수박(*Subak*)관념체계 전승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 정 훈**

요약

본 논문은 아리랑과 밀양아리랑 연구 현황 및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재분석한다. 이를 통해 밀양아리랑의 역사적 기원 찾기에서 벗어나 현재성과 전승성에 대한 강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교 사례로 발리 수박(*Subak*)관념체계의 전승과 활용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정책의 방향성과 발리 수박관념체계 비교사례는 밀양아리랑 전승방안 마련과 문화콘텐츠 생산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이다. 문화유산의 특징과 속성에 따른 전승방안 마련과 ‘고유성’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키느냐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성으로 이해된다. 특히 정책 당국의 전승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마을 주민 주도의 관광상품화는 결국 수박관념체계의 고유성과 지역성을 확인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밀양아리랑 기원 찾기와 전승에 대한 논의, 발리 수박관념체계의 사례는 밀양아리랑이 전승에 초점을 둔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주제어: 밀양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수박관념체계, 관광상품화, 고유성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0959). 발리 수박(*Subak*)이 가진 무형의 가치에 대해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blue3j@gmail.com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밀양아리랑이 다른 지역의 아리랑보다 역사성과 국민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문제가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밀양아리랑이 가진 역사적 기원과 소리의 원류를 찾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관련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2018년 9월 13일, 밀양아리랑 진흥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회의 중 한 참석자의 언설).

“날쭉 보소 날쭉 보소 날쭉 보소 동짓선달 꽃본 듯이 날쭉 보소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박희학·장현호 외 2013, 10)로 시작하는 밀양아리랑은 한국인에게 친숙한 가사와 음조이다. 정선아리랑과 진도아리랑에 비하여 가락과 곡조의 생기발랄함과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에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밀양아리랑은 정선아리랑과 진도아리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미진하고 전승과 보존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된 바 없다(조현성 2019, 3).

밀양아리랑의 전승과 보존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는 그동안 여러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아리랑 일반에 대한 기원과 어원을 찾으려는 노력과 같이 밀양아리랑 관련 연구와 관련 정책 역시 이 지점에 머물러 있다. 밀양 부사의 딸 아랑 전설에 기초한 해석과 경북 궁 중건 과정 중 백성들의 시름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 그리고 1920년대 신민요로 발표되었다는 견해 등이 주요한 논의였다. 그럼에도 밀양아리랑의 기원과 어원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리랑 기원의 불확실성과 같이 학계에서 정립된 이론과 사료가 없다.

아리랑은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로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의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의 세계무형유산 등재 당시 다음과 같

이 아리랑을 소개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일반 민중이 공동 노력으로 창조한 결과물이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로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여음과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해온 두 줄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종, 3,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유네스코의 아리랑에 대한 설명 중 주목되는 점은 아리랑을 한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로 인식할 뿐 그것의 역사적 기원과 출처에 대한 논의를 긴밀하게 다루지 않는다. 또한 유네스코는 아리랑의 지역 정보, 예능 보유자 그리고 무형유산의 의미 등 아리랑이 한국 사회 나아가 전세계에서 어떻게 전승되는지 현재성에 주목한다. 즉 문화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문화의 재창조 또는 재구성의 기제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구성주의(Kahn 1993)가 전승성에 기초한 현재성에 주목하게 된 인식론적 토대가 된다.

결국 아리랑의 사설을 특정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여러 세대에 걸쳐 일반 민중이 공동으로 창작한 결과물로 인식한다. 하지만 서두에 제시된 ‘밀양아리랑 진흥을 위한 관련 회의’ 참석자의 언설은 어쩌면 밀양 아리랑이 다른 지역 아리랑과 비교하여 낮은 인식 수준과 저변을 가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러한 연유를 밀양아리랑이 여타 아리랑보다 그 기원과 역사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 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지역 단위에서 다른 지역 아리랑과 비교 그리고 역사적 기원 찾기가 중요한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밀양아리랑의 현재성을 포착하고 아리랑 가사를 넘어서는 아리랑 담론과 그 사회적 실천의 맥락으로 연구 시야 확대를 주창하는(정수진 2017, 29) 연구 경향이 인식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이 무형문화유산 발전에 있어 전승에 기초한 문화정책이 여전히 지역 단위에서는 온전한 사회적 담론으로 정립되지 못함도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는 아리랑의 역사적 기원 찾기가 아닌 전승에 초점을 둔 무형문화유산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우선 본고는 아리랑과 밀양아리랑 연구현황 및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재분석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밀양아리랑의 현대적 개념과 의미를 재구성한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교사례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문화경관: 트리 히타 카라나 철학의 표현으로서의 수박 체계 (Cultural Landscape of Bail Province-the Subak System as a Manifestation of the Tri Hita Karana Philosophy, Subak Warisan Budaya Dunia: 이하 수박관념체계)’에 주목한다. 발리 수박관념체계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혼합된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관광 상품화된 문화자원의 전승성과 보존에 대한 논의, 특히 발리의 문화자원이 관광화 과정에서 재창조와 재구성된 측면(Nordholt 2007; Picard 1990; Pitana 2000)은 비교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국 유네스코 정책의 방향성과 비교사례는 밀양아리랑 기원 찾기와 전승에 대한 재인식 논의의 시작점이다.

본고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밀양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가 토대가 되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밀양아리랑을 담당하는 밀양시 공무원 및 밀양아리랑 보존회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하였고, 타지역 아리랑 사례 분석을 위해 정선군 현지조사와 정선아리랑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해외연구사례 검토를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고, 2019년 8월 한 달간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II. 아리랑 연구현황 및 역사적 기원에 관한 논의

한국에서 아리랑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는데, 아리랑 일반에 대한 연구와 특정 지역 아리랑에 대한 연구이다. 이 중 아리랑 일반에 대한 연구가 지역 아리랑에 대한 연구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리랑에 대한 연구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와 학술정보통합서비스(이하 DBpia)의 검색 결과를 중심으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리랑 관련 학위논문은 108건(<표 1> 참조), 학술논문은 282편(<표 2> 참조)이다. 이 중 지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즉 특정 지역의 아리랑이 아닌 아리랑 일반에 관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각각 72건, 164편으로 조사된다.

<표 1> 아리랑 관련 학위논문(석사박사)의 수

지역	정선	진도	밀양	연변	중국	지역 구분 없음	합
학위논문 수	15	9	8	2	2	72	108

출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자료 재구성

<표 2> 아리랑 관련 학술논문의 수

순위	지역	논문 수
1	지역 구분없음	164
2	북한	47
3	정선	15
4	밀양	8
5	진도	7
6	서울	6
7	일본	6
8	중국	4
9	국외	4
10	연변	3
11	인제	2

순위	지역	논문 수
12	충남	1
13	공주	1
14	해남	1
15	대구	1
16	고려	1
17	몽골	1
18	동아시아	1
19	독일	1
20	문경	1
21	경기	1
22	태백	1
23	영월	1
24	속초/고성	1
25	고성	1
26	고성	1
27	강릉	1
	합	282

출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자료 재구성

아리랑 관련 학술연구 중 석·박사 학위논문은 2018년 기준으로 총 108건(<표 3> 참조)이다. 고숙경이 1980년에 연구한 석사논문이 그 시작이다(고숙경 1980). 이후 2000년대 들어 아리랑 관련 학위논문이 대폭 증가하였다.

<표 3> 연도별 아리랑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발표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총	석사	박사
1980-1989	4	2	2
1990-1999	6	6	-
2000-2009	35	33	2
2010-2018	63	54	9
합계	108	95	13

출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자료 재구성

분야별로는 국악과 양악을 포함하는 음악 분야 학위논문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교육 분야 학위논문이 34건이다. 국문학과 음악 분야 연구가 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주로 다루어졌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음악과 교육 분야 논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아리랑을 주제와 소재로 한 음악 콘텐츠로서 활용에 대한 논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리랑 관련 학술논문은 DBpia 자료에 따르면 전체 282편으로 파악되고, 이 중 2000년대 이후 논문이 234편이다. 분야별로는 문학 분야가 98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악과 공연 분야 관련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표 4> 참조). 학위논문이 주로 음악과 교육 분야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문학 논문이 많은 것은 아리랑 어원과 전설에 관한 논의가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상의 정량적 분석에 의하면 그동안 아리랑 관련 연구의 지점은 기원과 어원을 밝히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다양성과 달리 하나의 정립된 이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본고는 아리랑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논점은 아니지만, 아리랑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다음 장에서 논의될 밀양아리랑의 현대적 개념과 의미 재구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4> 분야별 아리랑 관련 학술논문 발표 현황

(단위 : 건)

분야	문학	음악	공연	민속	지역문화	정책	영화	역사	교육	문화	시각	콘텐츠	관광	축제	기타	무형문화	합계
수량	98	46	46	14	13	12	10	8	8	7	6	5	4	2	2	1	282

출처: 학술정보통합서비스(DBpia) 자료 재구성

아리랑 기원에 관한 논의는 현재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지만 필자의 판단에는 유추의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리랑은 낙랑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시대 등 다양한 기원설이 현재까지 제시되었다. 고조선시대 아리랑에 대한 기원에 관한 설은 낙랑에서 비롯된 이병도의 낙랑시대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알영의 음에서 비롯된 신라 초기설, 광개토대왕 비문에 새겨진 아리수에 찾아본 고구려 중기설 등이 있다.

고려시대 아리랑의 기원에 관한 설은 정선아리랑과 연관되는데 고려말 충신 전오룡 외 7인이 정선 지역에서 아리랑을 불렀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조선시대 아리랑에 관한 설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 시 발행한 원납전의 강계 유통으로 백성들의 원망한 소리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결국 한국 역사의 거의 모든 왕조 시기 아리랑과 관련된 설의 존재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아리랑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요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연원에 대한 다양한 설은 아리랑 기원의 원류에 대한 각 지역의 주장이 상충하고, 상충된 주장들 대부분의 기록이 분명하지 않고 유추적 해석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18세기 말부터 나타난 아리랑 기원 관련 기록은 아리랑의 전승과 관련하여 주요한 지점으로 이해된다. 조선시대 후기 천주교 신자였던 이승훈의 『만천유고』(1790)에 있는 ‘농부사’의 한 구절에 “아로롱 아로롱 어희야”라는 표현이 있고, 이는 현재의 아리랑 후렴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진용선 2017, 13-14). 구전으로 전해지던 아리랑을 1896년 선교사 험버트(Hulbert)가 서양식 기보법으로 작성하였고, 제목은 아라롱(Ararung)으로 본문은 “아르랑 아르랑”이라는 한글로 표기하였다. 영국의 비숍(Isabella Bird Bishop)은 1898년 한국 여행 중 아리랑에 관한 가사를 소개하였는데 한국인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기술한다(Bishop 1996). 음원으로 남아 있는 아리랑은 1896년 미국의 인류학자인 플레처(Alice Cunningham Fletcher)가 미국

으로 유학 온 안정식, 이희철, 양손이 부른 한국 노래를 에디슨 원통형 음반에 채록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민요를 중심으로 가사채집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선총독부 축탁연구원이었던 김지연(1930)을 통해 ‘아리랑 발생설’이라는 소제목 아래 5개의 기원설을 제시하였다. 김지연이 제시한 아리랑 기원설은 이후 이병도, 양주동, 임동권 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논의 되었다(이병도 1956; 양주동 1959; 임동권 1969). 이상의 논의는 근본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일제 식민통치의 정당성과 찬양을 위해 의도를 갖고 만들어낸 식민사관의 결정체라는 의견이 학계의 정설이다.

하지만 아리랑을 언급한 기록물 중 가장 앞선 시대의 자료는 1894년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 제2권에 실린 고종 31년의 가사와 일본의 『우편보지신문(郵便保持新聞)』에 게재된 ‘조선의 유행요’이다(정수진 2017, 184). 결국 아리랑 기원에 관한 논의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기록에 나타난 아리랑 초기 논의 역시 학자별로 불명확하다는 지점이다. 다만 저자는 이 지점에서 아리랑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이견 중 아리랑이 한민족이 공유하고, 각 지역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널리 통용되는 민요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리랑이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시대와 계급을 뛰어넘어 전승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Ⅲ. 밀양아리랑 연구현황을 통해 본 현대적 개념과 의미의 재구성

앞서 논의된 아리랑에 대한 연구 경향과 같이 밀양아리랑 연구 역시

기원과 어원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밀양아리랑 관련 연구자와 시연자를 포함한 관계자 등이 제시한 밀양아리랑에 대한 기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밀양아리랑이 밀양 부사의 딸 아랑에 관한 전설을 기초로 한 해석이다(리동원 2002). 아랑이 원한을 품고 죽자 사람들이 아랑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아랑각을 세우고 아랑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다른 지역 아리랑과 다르게 밀양의 지역성이 투영되지만, 아랑이 ‘아리랑’과 언어적으로 유사성만 부각될 뿐 뚜렷한 연계 지점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둘째, 밀양아리랑이 1920년대 신민요에서 발표되었다는 견해이다(김선우 2016, 42). 밀양아리랑이 다른 지역 아리랑에 비해 지역적 색채가 강하지 않고 대중적인 멜로디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의견이다. 특히 고정옥(1949)은 『조선민요연구(朝鮮民謠研究)』에서 아리랑을 근대요로 구분한다. 물론 고정옥이 근대요의 개념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개화 이후 20세기에 주로 생겨난 시대성이 강한 민요를 의미한다. 결국 아리랑을 신민요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의견은 논거의 틀은 다르지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김시업(2009)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김시업은 아리랑에 대해서 “근대 시민 계급과 노동자·농민의 생활상의 여실한 반영”이라고 주장한다(김시업 2009, 329). 특히 아리랑의 명칭이나 가락·후렴 등이 민요 생활권에 내재되어 오다가 근대에 접어들면서 아리랑의 성격이 형성되고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서술한다. 따라서 아리랑의 가사나 선율로 봤을 때 19세기 이전으로 시원을 찾을 근거가 없음을 주장한다(김시업 2009, 340). 이 외 밀양아리랑 기원에 대한 설은 ‘경복궁 준공설’과 ‘알영설’ 등이 제시되지만, 이는 밀양아리랑에 한정되지 않은 아리랑 일반의 기원설과 연관된다.

결국 밀양아리랑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가장 큰 쟁점은 1920년대 생

성된 신민요인가, 아니면 그 이전 시대의 토속민요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우선 신민요로 보는 입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과정에서 음악적 체계화가 갖추어지는 1920년대를 밀양아리랑의 시작으로 인식한다(김기현 1991, 12). 다음으로 토속민요로 보는 입장은 밀양아리랑 관련 단체와 조용호(2011; 2017)의 논의가 주를 이룬다. 밀양아리랑의 전통 소리가 감내계줄당기기와 밀양백중놀이 등 밀양의 민속놀이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밀양아리랑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점은 밀양아리랑 연구 특히 전승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이다. 밀양아리랑 전승과 관련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된다. 첫째, 밀양아리랑 가사집 발간 활동이다. 밀양아리랑 가사집 발행은 2013년 밀양아리랑보존회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밀양아리랑가사집』은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가사를 취합하고 새롭게 창작한 가사를 발굴하여 총 1,100여 수의 가사를 수록하였다(박희학 외 2013). 비록 정선아리랑과 진도아리랑 가사집보다 제작이 늦었지만 새로운 가사 발굴, 밀양아리랑 표준악보 제작 그리고 분야별로 가사를 분류하여 수록한 특징이 있다.

밀양아리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가 2014년에 제작한 『밀양아리랑 200선』은 앞서의 『밀양아리랑가사집』가사를 간추려 출판하였다(박희학 외 2014). 이러한 방식의 가사집 제작은 관련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타지역 아리랑에 비하여 지역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밀양아리랑을 시민에게 홍보했다는 유의미한 사례이다.

둘째는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활동이다. 밀양아리랑 학술대회는 2011년 4월 29일 개최되었다. 밀양시와 밀양제집전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아리랑 학술강연회: 밀양아리랑 이야기’가 그 시작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8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학술대회 초기에는 밀양아리랑의 역사, 변용 그리고 특성을 규명하는 발표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는 밀양아리랑의 유래 및 가사

의 의미를 찾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또한 발표자가 한정되고 중복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원고가 수록되기도 하였다. 2018년과 2019년의 학술대회에 이르러 문화예술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보인다(<표 5> 참조).

밀양아리랑은 다른 두 지역인 정선과 진도보다 가사집, 연구서, 보고서, 문학작품 등에 있어 제작 시기가 늦거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초로 발간된 정선아리랑 가사집은 1955년에 발간된 『旌善民謠集: 정선아리랑』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정선교육구 1955). 진도아리랑은 정선아리랑보다 늦은 1980년대 들어서 처음 가사집이 작성되었다. 박병훈(1986)의 『진도아리랑 타령 채록집』은 444개의 진도아리랑 가사가 채록되어 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진도군은 2010년에 『진도아리랑 타령 가사집』을 발행하였고, 채록집에는 진도 아리랑 777절의 가사를 채록하였다(진도군 2010).

<표 5> 밀양아리랑 학술대회명 및 발표 내용

일시	대회명	주최(주관)	발표
2011. 4.29	제1회 아리랑 학술강연회: 밀양아리랑 이야기	밀양시, 밀양제집전 위원회	김연갑(밀양아리랑 그 역사와 변용) 서정매(영남의 명물, 밀양아리랑의 선율구조)
2012. 5.4	제2회 아리랑 학술강연회: 밀양아리랑 이야기	밀양시, 밀양제집전 위원회	김연갑(중국의 아리랑 사태와 문화전쟁) 서정매(밀양아리랑의 음악적 정체성에 관한 고찰) 이중협(밀양아리랑을 찾아서)
2014. 6.13	밀양아리랑 학술세미나: 아리랑의 역사와 문화, 그 전승방향	밀양아리랑 보존회	아리랑 쓰리랑의 기원과 어원에 관한 연구(우실하) 북한에 전승되는 민요 아리랑 연구(김영운) 밀양아리랑의 창조적 계승에 대한 과제(기미양)
2015. 4.23	제2회 밀양아리랑 시민토론회: 밀양인들이 말하는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 보존회	기조연설: 정선아리랑의 시대적 변천과 전승양상 (진용선) 밀양아리랑 전승현황(하용부) 발표: 아리랑의 메시지와 그 역사(이중협) 밀양아리랑의 변용과 전승에 관한 연구(서정매) 예술상품으로서의 밀양아리랑콘텐츠(박영호)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의 성과와 향후 방안(김금희)

일시	대회명	주최(주관)	발표
2016. 6.23	밀양아리랑 심포지엄: 밀양아리랑의 근원과 역사의 정립	밀양시, 밀양아리랑 보존회	밀양아리랑의 유래 및 가사의 문화적 의미(김상규) 아리랑은 아리랑이다(김연갑) 민족의 혼을 불러온 아리랑(이종협) 밀양아리랑의 연원과 역사성 연구(조용호) 명리학으로 본 밀양아리랑 역사(범오스님) 밀양아리랑의 분류에 대한 제언(이걸재)
2017. 5.19	제4회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밀양아리랑의 역사와 문화, 그 전승 방향	밀양문화재단, 밀양시, 밀양아리랑 보존회	기조연설: 밀양아리랑의 속성은 동시대성 발표: 밀양아리랑의 학술체계 정립과 역사성 연구(조용호) 밀양아리랑의 문화수용과 창출(박경수) 밀양아리랑 콘텐츠개발의 성과와 향후방안(김금희) 아리랑의 생성과 역사(이종협) 명리학으로 본 밀양아리랑(범오스님)
2018. 5.18	제5회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밀양아리랑의 선비정신과 의열정신	밀양문화재단, 밀양시, 밀양아리랑 보존회	아리랑, 그리고 밀양아리랑의 열(조영석) 밀양아리랑과 선비정신의 연원(조용호) 아리랑과 독립군이 하나이다(최필숙)
2019. 12.04	제6회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문화예술, 밀양아리랑의 내일을 논하다	밀양시, 밀양아리랑 보존회	지역문화브랜드로서 밀양아리랑의 현황과 전망(최은숙) 밀양아리랑의 역동성(조순자) 밀양아리랑의 문화문화 수용양식과 그 의미(박경수) 밀양아리랑, 연극 또는 공연으로서 가능성(박정의) 밀양아리랑의 정서와 창조적 색채에너지(정창훈)

출처: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자료집 재구성

밀양아리랑에 대한 연구가 비록 타지역 아리랑보다 연구의 폭과 범위가 한정적이지만, 일부 학술연구를 통해 밀양아리랑의 ‘고유성(authenticity)’에 대해 재고찰이 가능하다. 첫째, 밀양아리랑은 ‘밀양’이라는 지역성을 반영하지만 정선과 진도의 아리랑에 비하여 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기현(1991)과 서정매(2007)의 논의는 1920년대부터 밀양아리랑이 토속성과 통속성의 성격을 지니면서 전승되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밀양아리랑의 형성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는 향후 아리랑의 기원과 어원에 관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김기

현(1991)은 밀양아리랑 형성과정을 토속노래의 자탄적 삶의 노래에서 기인하고, 이후 경기잡가류인 양산도 가락, 아리랑류의 후렴, 아랑설화의 사설화 등과 결합하여 밀양아리랑이 만들어졌음을 주장한다.

셋째, 밀양아리랑의 음 구조가 경상도 지역 향토음악의 특성을 드러내는 ‘메나리토리’나 ‘어사용토리’가 아닌 서울·경기지방의 반경토리와 유사성을 제시하고(김영운 1999), 이는 밀양아리랑이 가진 지역성과 토속성에 대한 학문적 논쟁의 가능성을 촉발한다.

넷째, 밀양아리랑의 빠른 선율은 그동안 밀양아리랑이 유희요로서 한정된 역할만을 제시하지만, 독립군아리랑·광복군아리랑·신밀양아리랑 등과 같은 동시대성과 민족성이 반영된 아리랑의 발굴은 밀양아리랑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다.

그럼에도 밀양아리랑 관련 연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무형문화유산 전승에 대한 논의와 밀접히 관련된다. 첫째, 밀양아리랑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역사적 형성과정인 기원과 선율분석에 집중된 연구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밀양아리랑의 지속과 변이 과정에 대한 심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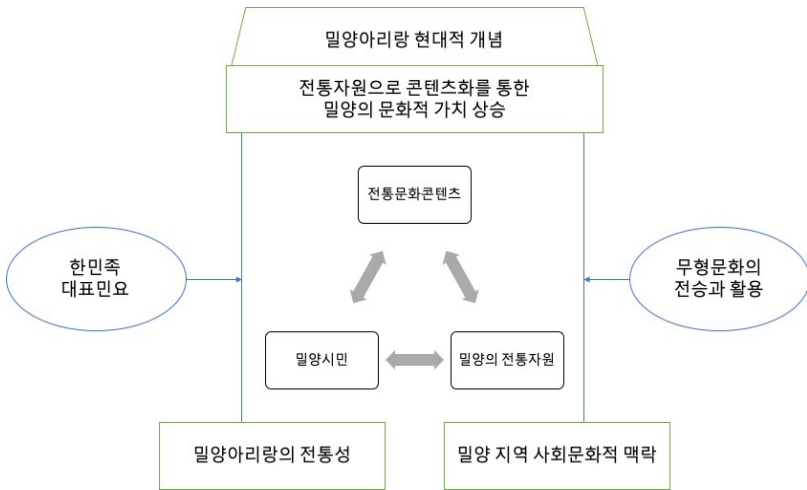
둘째, 편중된 밀양아리랑의 기원과 특성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연구자 혹은 시연자의 주장이 반복된다. 예를 들어 밀양아리랑의 기원을 1920년대 신민요로 보는 연구자와 항몽시기 또는 여말선초로 보는 연구자 간의 상호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연구자, 지역전문가 그리고 밀양아리랑 시연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밀양아리랑의 역사, 속성, 위상 등에 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밀양아리랑 가사에 밀양의 지명이나 관련 인물이 포함되는 현장성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남천강 구비쳐서 영남루를 감돌고/중천에 뜨는 달은 아랑각을 밝히네’라는 가사는 밀양시 남천강과

영남루, 아랑각 등 밀양을 대표하는 명승지와 아랑이라는 인물이 가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밀양아리랑과 밀양의 현대성 혹은 동시대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한다. 특히 밀양시민에게 밀양아리랑은 현재의 밀양을 상징하는 문화적 기호보다는 과거에 존재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활용된 측면이 있다.

앞서 논의된 밀양아리랑의 다양한 연구성과는 밀양아리랑의 현대적 개념과 의미를 재구성한다. 또한 밀양아리랑이 가지는 현재성과 전승성에 대한 강조의 필요성 역시 역설한다. 밀양아리랑은 음악 콘텐츠로서 전통음악의 명맥을 유지하고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 발전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밀양시민에 의해, 밀양의 전통문화자원으로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하는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등이 필요하다(<그림 1> 참조).

〈그림 1〉 밀양아리랑 현대적 개념 수립 방안



출처: 저자 작성

IV. 발리 수박관념체계를 통해 본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성

2013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ICH협약)을 채택하였다. ICH협약은 기존의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정책 방향성을 무형문화유산으로 확장시킨 측면이 있다. ICH협약은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 및 자연유산 간의 깊은 상호의존 관계를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IV.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항목’을 강조함으로써 대표목록의 공표를 제안한다. 결국 ICH협약은 ‘문화다양성’, ‘재창조성’ 그리고 전승 주체인 ‘공동체’의 ‘참여’ 여부를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박선희 2019, 86).

ICH협약 채택은 유형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에 중심을 둔 국내법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고, 2013년 ‘김치’가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되는 과정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추동하였다. 제19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고,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시행되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ICH협약이 제시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확장과 공동체 및 특정인이 가진 지식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이 국내법으로 온전히 치환되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을 계승하려는 측면은 엿보인다. 그럼에도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 역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된다. 기존의 보유자에게 속했던 권리가 국가로 환수된 반면, 보유자의 의무와 역할은 강화되었다(정수진 2015, 304). 무형문화유산 목록 선정에 있어 유네스코 체제보다는 그

체제하에서 작동 중인 문화정치의 논리를 따라 취사선택되었음을 지적한다(정수진 2015, 310). 본고의 주요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ICH협약과 법률안이 추구하는 지향점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지역성’의 강조이다.

지역성은 ICH협약 중 ‘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하지만 ICH협약에서 공동체는 정의의 모호성으로 여러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박선희 2019). 결국 공동체에 대한 정의 부재 및 모호성은 미국 등 다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일부 국가에서 ICH협약이 채택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지역성과 공동체 정의의 부재에 따른 현실에서 적용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무형문화유산 문화공간의 강조이다(조성실 2017). 무형문화유산 문화공간은 고정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이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비정형적 특질을 갖고 있다. 때로는 문화공간이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 형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반복하는 속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조성실 2017, 182). 결국 무형문화유산 문화공간의 강조는 무형문화유산이 가진 속성의 재인식 필요성을 강조하며, ICH협약과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의 중요한 지향점 역시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이 가진 특징과 속성에서 주목할 점은 결국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이다. 전승에 방점을 두고 ‘고유성’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키느냐가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발리 수박관념체계의 세계유산 등재와 이후 주민들의 인식과 활동은 주목된다.

〈그림 2〉 수박관념체계 관련 무형문화유산



출처: 저자 촬영

수박관념체계와 이와 관련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은 현재 발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 특히 발리 우붓은 수박관념체계의 핵심인 수박관개시설을 활용한 트레킹이 관광객에게 일종의 ‘에코투어리즘 (eco-tourism)’ 상품으로 판매되는 지역이다. 관개시설의 일부인 계단식 논과 수로 그리고 전통마을이 관광상품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과 관광업 종사자들은 전통공연, 전통음식 그리고 공예상품 등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수박관념체계는 2012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3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새롭게 주목받았다. 유네스코는 관개시설, 계단식 논의 풍경을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문화경관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관개시설과 계단식 논의 풍경을 화산섬에 조밀한 인구가 모여 있는 환경조건을 극복하는 수단이자,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의식 체계의 일부로 이해한 것이다(정정훈 2017, 144). 또한 수박관념체계의 주요한 철학적 지점인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 이하 THK)’ 역시 주목받았다.

THK는 일종의 발리인의 삶의 철학이다. 행복의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석되는 THK는 인간과 신,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다. 대중관광의 발전 과정에서 발리인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THK를 내세운다. 특히 관광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환경 건전성(social integrity), 사회 정의(social justice) 그리고 경제성장(economic development)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THK를 철학적 기초로 활용한다(Peters and Wardana 2013; 정정훈 2017, 5 재인용). 결국 수박관념체제와 THK를 기초로 현재 발리섬의 주요한 관광유형인 ‘지속 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농촌관광(agro tourism)’,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등이 만들어지고 주민에 의해 작동된다.

특히 이는 발리주정부의 문화관광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 정책과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발리주정부의 관광정책은 문화관광정책으로 이해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군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발리 지역은 관광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채택하였고, 1969년 외국인 관광객의 발리 방문 자율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외국인의 발리 방문 자율화로 인해 야기된 대중관광의 성장은 발리주정부 관광정책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1970년대 전후 전통문화를 통한 관광 발전이 관광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떠올랐고, 발리주정부는 1972년 공식적으로 발리 관광 진흥 정책의 하나로 ‘문화관광’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환경오염의 문제는 ‘그린 발리(Green Bali)’ 담론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정정훈 2018). 문화관광과 그린 발리 담론의 대두 과정에서 수박관개시설은 지속적인 관광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전통문화이자 관광상품이다. 관광 발전을 위해 발리주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2,345개의 수박관념체제 관련 시설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약 4.2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수박관념체제 관련 시설 보존을 위한 발리주정부 정책 중

주목되는 점은 이의 보존과 활성화가 수박조직의 운영과 재건에 집중된다. 또한 이를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은 유네스코의 수박관념체계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였다.

유네스코는 2000년대 들어 수박관념체계와 관련된 시설 등이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전통적인 삶과 지식의 변화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셋째, 주택 건설의 문제이다. 넷째, 지역공동체의 변화에 따른 정체성과 사회협력의 문제이다. 다섯째, 수박관개시설의 운영 체계의 변화와 향후 계획수립의 문제이다. 이상의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제 혹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발리주정부는 기민하게 대처하고 관련 예산 등을 새롭게 수립하였다(유네스코 홈페이지).

물론 수박관개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의 보수도 예산 지원의 한 방향이지만, 이번 정책의 핵심은 수박관념체계를 지탱하는 마을 조직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운영과 조직 재건에 집중된다. 대략 하나의 수박조직에 2천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조직을 정비하고, 나아가 수박관념체계의 부속시설 중 하나인 수박사원의 재건과 마을 의례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였다. 결국 발리주정부와 유네스코의 수박관념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지원과 방향성이 보존과 전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박관념체계가 가진 문화적 가치는 앞서 제시한 무형문화유산 문화공간의 사례와 연관시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 물리적 장소인 문화공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은 지속적으로 사람 간의 전승을 통해 유지된다. 더욱이 발리의 사례는 두 가지 지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문화적 인볼루션(cultural involution)의 사례로서 수박관념체계는 이해될 수 있다. 인볼루션(involution)의 한국어 해석은 다양하고 학문 분야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퇴화’와 ‘정교화’ 등 정반대로 해석되는 인볼루션의 의미는 앞의 수식어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된다. 문화적 인블루션의 개념을 사용한 맥킨(McKean 1989)은 한 지역의 관광 발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전통문화의 파괴, 현지 주민의 분화 그리고 현대화의 과정이 필연적인 결과가 아님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블루션을 일종의 ‘강화’라고 해석하였다.

발리 지역은 문화를 통한 관광의 발전이 발리인의 전통을 강화시키고, 사라져가는 의례 등을 재구성하고 나아가 사회관계가 점진적으로 재정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1920년대부터 예술가와 학자들의 직간접적인 상호교류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증폭되었다. 또한 수공예품과 미술작품이 관광 발전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확장되었고, 이는 발리 전통문화의 전문성을 심화시켰다(McKean 1989).

수박관념체계 역시 문화적 인블루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리의 생업 수단이 농업에서 관광으로 변화하고 농민들은 서비스업 종사로 변모한다. 이 과정에서 수박관개시설, 관개시설 관련 조직, 마을 주민들은 필연적으로 존속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농업을 위한 농지가 자바인과 외국인에게 팔리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하지만 계단식 논, 수박관개시설 그리고 마을 전통 의례 등이 ‘지속 가능한 관광’, ‘대안관광’ 그리고 ‘생태관광’으로 범주화되고 담론화 과정에서 수박관념체계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더욱 공고화되고 재구성화되는 과정을 겪는다(정정훈 2017).

둘째는 ‘만들어진 전통’과 ‘실존적 고유성(existential authenticity)’의 획득 과정이다(Hobsbawm and Ranger 1983; Wang 1999). 수박관념체계와 그에 부수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들은 근대화의 과정의 일부이거나 혹은 현재 문화에서 관찰된 역동적 실체로 이해된다. 수박관념체계는 앞서 논의한 생태관광의 범주와 함께 ‘실존적 고유성’ 획득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다. 실존적 고유성은 기존의 객관적 고유

성과 구성적 고유성이 특정 관광대상물에서 파생되는 개념과 대비하여 관광객의 관광 경험에서 비롯된 존재론적 인식이다(Wang 1999).

관광의 고도화 과정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 전통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화유산의 경험이 문화관광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관광객은 이를 통해 현지 문화를 이해하거나 ‘고유성’을 경험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관광객들이 ‘새로운’ 유산보다는 ‘전통적인’ 유산에 좀 더 심미적 가치와 상징성을 부여하는 시각과 맞닿아 있다(Richard 1996, 262). 물론 이러한 고유성 획득 역시 ‘만들어진 전통’이나 ‘무대화된 고유성’의 개념으로 상호보완적이다(MacCannell 1973; 1977; 1999).

본고의 비교사례로 제시된 수박관념체계는 스펙터클한 광경을 보여주는 계단식 논, 의례와 관련된 수박사원 그리고 관련 의례 등은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물의 존재가 발리 그리고 우붓 지역 문화관광의 성공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랭이” 혹은 “다랭이 논”으로 검색을 하면 남해군, 구례군, 여수시에 계단식 논을 묘사한 “노랗게 익어가는 구례 다랭이 논 가을 풍경”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계단식 논의 풍경과 이국적인 전통 의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발리의 수박관개시설과 관광 실천 과정은 일종의 실존적 고유성을 획득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된다(정정훈 2017). 실존적 고유성을 경험하는 관광객을 탈근대 관광객으로 지칭한 김희영·김사헌(2006, 24)은 관광대상의 고유성 여부보다는 관광객이 사회 환경에서 상실 위기에 처한 존재적 실체에 대한 경험의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박관개시설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의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과정, 특히 발리의 경우 기존의 단기간 머무르는 관광이 아닌 한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장기 거주 외국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그

사회의 변화상을 체험하고, 때로는 한 지역의 문화적 변화를 촉발하기도 한다(정정훈 2017).

결국 수박관념체계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시한다. 문화적 인볼루션, 만들어진 전통 그리고 실존적 고유성 찾기는 발리가 여타 열대관광지와 다른 차별화된 지점이다. 특히 관광의 발전이 도리어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재구성하는 관점은 주목된다. 발리 주민, 연구자 그리고 관계 당국은 수박관념체계에 대한 원초적 기원 찾기와 원형 보존 노력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관광 발달 과정에서 주민의 관광대상물에 대한 인식과 실천 그리고 장기 거주 외국인과 같은 외부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이는 특정 문화의 기원에서 비롯된 고유성의 획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된다. 즉 한 지역의 문화상징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 존재한 특별한 존재가 아닌,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에 의해 전승되었다는 속성이 있음을 발리 사례는 확인시켜준다.

한국의 아리랑은 각 지자체 문화 관광정책의 방향과 결부되어 지역성이 강조된 채 다양한 정책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 지자체장의 문화 분야 성과와 결합되면서 지역성 강화 논리는 더욱 강조되었다. 각 지역의 문화상징물로 아리랑이 활용되지만, 실제로 지역민에게 아리랑의 지역성이 뚜렷하게 인식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아리랑의 향토민요화는 유네스코 등재와는 관련이 없다(정수진 2017, 198). 문화재청을 비롯한 당국은 특정 지역 아리랑을 인류무형문화유산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하지 않았고, 후렴구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노래는 아리랑의 범주로 분류한 후 무형문화유산화 하였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방향성에 기대어 그동안 진행되어온 지역성, 공동체성, 확고한 전승 방법 그리고 문화상품화 과정에서 더 이상 원초적 기원 찾기 노력은 재고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의 시원 및 원

형성보다 원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무형문화 보존의 원칙보다는 활용의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함한희 2007, 17). 더욱이 밀양아리랑의 원초적 기원 찾기가 밀양아리랑의 인식의 저변을 확장할 것이라는 믿음과 문화관광정책 활성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관념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도리어 밀양시가 무형문화유산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아리랑의 전승 중심지로서 가치가 돋보일 것이다. 결국 사람 중심의 전승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국내외에서 밀양아리랑의 인식과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V. 결론: 전승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

문화란 시대의 흐름과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구성되고 재구성 되어왔다(Kahn, 1993).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상징하는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에 비하여 특정 유형의 대상물 부재로 인해 낮은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성과 창조적 발전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 장치의 부재 그리고 사람 간의 전승으로 인한 세대 간의 단절 문제가 제기되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따른 등재 시스템 역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이 쉽지 않은 현실적 상황에서 권위성을 일정하게 부여받은 ‘유네스코’와 ‘세계무형유산’은 도리어 국내적인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담론이 되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성이 역사적 기원 찾기와 원형 보존이 아닌 전승이 주요한 지점인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향성이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정책 지원의 방향성 역시 명료하지 못했다. 본고는 ‘한국의 서정민요’로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아리랑, 특히 밀

양아리랑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아리랑과 밀양아리랑 연구현황 및 역사적 기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리랑 연구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아리랑 관련 연구가 여전히 그것의 기원과 어원을 밝히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무형문화유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아리랑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있다. 다만 그동안의 연구와 실현 과정에서 아리랑의 역사성과 시대와 계급을 뛰어넘는 전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밀양아리랑에 관한 논의 역시 그것의 기원과 어원을 밝히려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아리랑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있다. 다만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와 국가무형문화재 선정 전후로 밀양시와 밀양아리랑보존회 주도의 전승과 관련한 일정한 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기원과 어원 중심의 관련 연구와 학술대회 그리고 예산의 투여와 집행에 있어 관 주도의 전승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밀양시민에게 밀양아리랑은 현재의 밀양을 상징하는 문화적 기호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과거에 존재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활용된다. 결국 시민 주도의 밀양아리랑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과 발리의 수박관념체계의 비교사례는 밀양아리랑 전승방안 마련과 문화콘텐츠 생산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이다. 문화유산의 특징과 속성에 따른 전승 방안 마련과 ‘고유성’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키느냐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으로 이해된다.

발리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박관념체계는 경제적·문화적 가치 상승을 위한 발리주정부와 주민의 역할이 주목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이다. 수박관념체계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둘러싼 문화적 인블루션, 만들어진 전통 그리고 실존적 고

유성 찾기는 발리가 여타 열대 관광지와 다른 차별화의 지점이다. 더욱이 무형문화유산과 같은 문화상징이 주민을 포함한 외부인까지 “끊임 없는 선택과 결정”에 의해 전승되었다는 속성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지시킨다. 결국 밀양아리랑에 대한 기원과 어원을 찾는 연구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다양한 기원을 근거로 전승과 보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의 첫머리에 제시된 연구용역 관련 회의의 한 참석자의 언설처럼 여전히 역사적 기원과 원류 찾기는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관련 회의가 정책보고서 수행을 위한 사전회의 단계가 아닌 연구가 거의 마무리 된 시점이었고, 나아가 그 언설을 했던 정책관계자뿐만 아니라 시연자와 주민들 대부분 역사적 기원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다. 주민집단, 정책관계자 그리고 시연자가 공유한 원류 찾기에 대한 담론은 향후 문화정책 수행에 있어 예산과 인력의 함몰로 이어질 것이다. 더하여 밀양아리랑의 지속 가능한 활용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밀양아리랑의 정체성은 고유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내포해야 한다.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되었고, 201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 및 지정되었다. 이는 밀양아리랑이 다른 아리랑과 공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의 아리랑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상징적 행위이다. 아리랑의 가사, 선율, 가락이 가진 보편성 특히 한민족의 정서가 녹아 있는 노래이자 가장 널리 공유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상징으로 정체성을 뚜렷하게 내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로서 특정 지역에 한정된 그리고 학술적인 평가가 어려운 기원 찾기와 이의 재생산을 가감하게 중단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시 아리랑에 대한 평가인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현대에 적용되고 있다는 지점’과 ‘국가무형문화재 아리랑 종목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리랑의 기원 찾기는 어쩌면 아리랑의 지역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기원 찾기를 통한 지역성의 강조는 비전문적이고 비학술적인 담론 생산으로 이어졌다. 아리랑이 가진 지역성의 재생산은 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문화정책을 통한 전승 과정의 투명화, 타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타지역 아리랑과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밀양아리랑 나아가 아리랑이 가진 고유성과 지역성이 더욱 뚜렷하게 표출될 것이다.

투 고 일: 2020년 07월 19일

심사완료일: 2021년 02월 11일

게재확정일: 2021년 02월 11일

참고문헌

- 고숙경. 1980. “정선아리랑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음악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고정옥. 1949. 『조선민요연구(朝鮮民謠研究)』.
- 곽동현. 2012. “<밀양아리랑>의 유형과 시대적 변천 연구.” 『음악문화학』 3: 105-138.
- 김기현. 1991. “밀양아리랑의 형성과정과 구조.” 『문화와융합』 12: 121-146.
- 김선우. 2016. “아리랑의 미디어 문화사 연구.” 『반교어문연구』 42: 419-460.
- 김시업. 2009. 『근대의 노래와 아리랑』. 서울: 소명출판사.
- 김영운. 1999. “영남민요 어사용의 음조직 연구.” 『한국민요학』 6: 45-131.
- 김지연. 1930. “朝鮮民謠 아리랑-朝鮮民謠의 研究((二).” 『朝鮮』.
- 김희영 · 김사현. 2006. “탈근대성 시대의 고유성과 존재론적 고유성: 관광현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0(1): 9-27.

- 리동원. 2002. 『조선민요의 세계』. 서울: 민속원.
- 딘 맥켄넬. 오상훈 역. 1999. 『관광객』. 서울: 일신사.
-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편. 2014. 『밀양아리랑 200선』. 밀양: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 박선희. 2019. “문화다양성의 역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국가주의.” 『문화와 정치』 6(4): 85-112.
- 박병훈. 1986. 『진도아리랑 타령 채록집』. 전라남도: 진도문화원.
- 박희학 · 장현호 · 서정매. 2013. 『밀양아리랑가사집』. 밀양: 밀양아리랑콘텐츠사업단 · 밀양아리랑보존회.
- 서정매. 2007. “선율과 음정으로 살펴본 밀양아리랑.” 『한국민요학』 21: 79-110.
- _____. 2012. “밀양아리랑의 변용과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35: 131-166.
- 양주동. 1959. “도령과 아리랑: 古語研究二題.” 『민족문화』 4(2).
- 이병도. 1956. “아리랑 곡의 유래.” 『개척』 86(5).
-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역. 1994.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 살림.
- 임동권. 1969. “아리랑의 起源에 대하여.” 『韓國民俗學』 1.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oundation). 2010.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http://heritage.unesco.or.kr/6316-2/>(검색일: 2020. 03. 10.).
- 진도군. 2010. 『진도아리랑 타령 가사집』. 전라남도: 진도군.
- 진용선. 2017.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박물관.
- 조성실. 2017. “무형문화유산 문화공간 연구: 유네스코 등재 사례 분석 및 국내 문화공간의 재발견.” 『실천민속학연구』 30: 155-186.
- 조용호. 2011. 『아리랑 원형연구』. 서울: 학고방.
- _____. 2017. “밀양 아리랑의 학술체계 정립과 역사성 연구.” 『제4회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밀양아리랑의 역사와 문화, 그 전승방향』. 밀양: 밀양시 · 밀양아리랑보존회.

- 정선교육구. 1955. 『旌善民謠集: 정선아리랑』.
- 정수진. 2015.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정치학: 유네스코 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6: 287-318.
- _____. 2017.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제 하의 아리랑.” 『실천민속학연구』 29: 179-214.
- 정정훈. 2017. “발리 우붓 지역 관광발달과 전통의 재구성: 뉴꾸닝 주민의 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2018. “생태-문화관광의 현황과 재고찰: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의 수박(subak)사례.” 『문화정책논총』 32(1): 167-193.
- 조현성. 2019. 『밀양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 경상남도: 밀양시.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검색일: 2018. 10. 31.).
- 학술정보통합서비스(DBpia). <http://www.dbpia.co.kr>(검색일: 2018. 10. 31.).
- 함한희. 2007. “무형문화유산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제학술심포지엄.
- 황현. 1894a. 이장희 역. 『매천야록 上』. 서울: 명문당.
- _____. 1894b. 허경진 역.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개화와 망국의 매천야록』. 서울: 서해문집.
- Hobsbawm, Eric J., and Terence. O. Ranger.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donesia. 2012. “Cultural Landscape of Bali Province: the Subak System, as a Manifestation of the *Tri Hita Karana* Philosophy.” <https://whc.unesco.org/en/soc/2815>(검색일: 2020. 03. 20.).
- Kahn, J. S. 1993. *Constituting the Minangkabau: Peasants, Culture and Modernity in Colonial Indonesia*.
- McKean, Philip Frick. 1989. “Towards a Theoretical Analysis of Tourism: Economic Dualism and Cultural Involution in Bali.” *Hosts and*

-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acCannell, Dean.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3): 589-603.
- _____. 1977. "Staged Authenticity." Valene L. Smith, ed. *Host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Nordholt, H. S. 2007. *Bali An Open Fortress, 1995-2005: Regional Autonomy, Electoral Democracy and Entrenched Identities.* Singapore: NUS Press.
- Peters, Jan Hendrik and Wardana Wisnu. 2013. *Tri Hita Karana.* Jakarta: Gramedia.
- Picard, Michel. 1990. "'Cultural Tourism' in Bali: Cultural Performances as Tourist Attraction." *Indonesia* 49: 37-74.
- Pitana, I Gde. 2000. *Cultural Tourism in Bali: A Critical Appreciation.* Denpasar: Research Center for Culture and Tourism University of Udayana.
- Richards, Greg. 1996.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uropean Cultur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261-283.
- Wang, Ning.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49-370.

Abstract

Finding the Origin of *Miryang Arirang* and
Recognizing the Tradition:
Comparative Study on Bali *Subak* System

Jeong Hun JEONG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 presents a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focuses on transmission rather than finding the historical origin of *Arirang*. Review recent discussions on the research status and historical origins of *Arirang* and *Miryang Arirang*.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discussion of the origin of *Arirang* and *Miryang Arirang* is still uncertain, and that *Miryang Arirang* cannot be closely connected as a cultural symbol of *Miryang*. The Bali *Subak* irrigation system presented as compartative research case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various points. The point of interest is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locality and authenticity of *Subak* system. It is not necessary to discuss the origin of *Miryang Arirang*, but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use tradition and cultural contents.

Keywords: Miryang Arirang,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urism Commercialization, *Subak*(irrigation), Authenticity

